

# 회의장 박차고 나간 이낙연... 또, 탈당?

## 개혁신당 내용 심화

### 총선 지휘권 놓고 두 계파 충돌 “전두환 국보위냐” “선거 위한 것”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측 “합당 파기 고민”... 오늘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탈당 세력을 중심으로 뭉친 개혁신당이 합당 초기부터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사건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 총선을 누가 지휘할지 여부를 놓고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주축인 새로운미래측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개혁신당의 분당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개혁신당 등에 따르면 옛 민주당 인사와 이준석 공동대표 측이 선거 지휘권과 배분주 전 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공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선거 정책 전반 지휘권, 최고위가 배 전 부대표에게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이나 과거 발언을 사과하도록 결정, 지도부 전원의 지역구 출마 등 3가지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선거 총괄의 전권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고 최고위를 거처야 한다고 맞섰다. 배 전 부대표 문제에 대해선 '배제의 정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갈등은 3차 정례 최고위인 16일 회의를 하루 전인 15일 취소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회견 1시간 전 취소하고 19일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결국 이준석 공동대표의 뜻대로 이날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에서는 총선 선거 운동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회의장 내에서는 고성어 터져 나왔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등 새로운미래 출신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장에서 빠져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건 민주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담화를 관철했다”며,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담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2월 9일의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만까지 냈다.



나흘로 '엄중'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웅천, 김태섭 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이낙연 공동대표. /연합뉴스

새로운미래 출신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준석 수령의 조선노동당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건 합당 파기하는 것 아니냐. 심각하게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지를 정제와 초기 혼란에 빠진 당을 더 강하게 이끌기 위해 제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뒤에 서 있을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기존 개혁신당 출신인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사담화는 과한 표현인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지도부와 실무자끼리 소통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공동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절차를 다 지켜서 진행했다”며 “기존 사안들을 서로 실무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갈라선 형국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총선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각 세력이 뭉친 근본적 이유가 총선 승리인 만큼 하루 속히 갈등을 수습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개혁신당 출신의 양항자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지금 기싸움하고 주도권 싸움할 때가 아니다”라며 “대안과 정책 제시보다 세력 규합에 매몰되면 국민들은 거대 양당보다 개혁신당을 더 먼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이번 내용이 봉합되더라도 조만간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 국면에 가면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심각하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김의장 “선거구획정 6개월전까지 못하면 선관위안대로 해야”

###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 국민의 참정권 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로,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선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

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하자”고 했다.

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확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 절벽’이 “5년 단임제에 따른 중구난방식 분절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최우선적으로 2006년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공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안에 명확한 정책 목표와 국가 책임이 명시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 리얼미터 조사, 윤 지지율 39.5% ‘소폭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 5일~8일)보다 오차범위 내인 0.3%p포인트(p) 오른 수치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36.2%→37.3%→39.2%→39.5%) 오름세를 보였다.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0.5%p 하락한 57.2%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9.1%, 더불어민주당이 40.2%로 조사됐다. 직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8%p, 1.6%p 하락한 것으로, 변동 폭은 모두 오차범위 내이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 처음 포함된 개혁신당 지지율은 6.3%로 조사됐다. 녹색정의당은 0.1%p 오른 2.3%, 진보당은 0.5%p 내린 1.1%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3%p 상승한 8.8%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0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청, 슬러지 건조기 등

###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기업부 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 앞 위치